

국정뉴스



### 문재인 대통령 인도 국민방문

신 남방정책의 파트너로서 경제협대화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7월 8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국민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문 정부의 신 남방정책의 거점으로 포스트 차이나의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코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7월 9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국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7월 1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한다”며 인도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현재 200억불에서 500억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국민방문

4차산업혁명 시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1일 2박 3일 간 한국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싱가포르를 국민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양국간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7월 12일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첨단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7월 13일에는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주거

####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8-0746

####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포츠닥터스 공동 실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6월 23일 춘천시 근화동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 기념관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포츠닥터스와 함께 강원 북부권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사회적 약자 돌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스포츠닥터스는 내

과, 한방 진료 등의 의료봉사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의약품과 생활상비약품 등을 제공했다.

박종환 총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에 도움 되는 국민민복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돌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외계층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6·25전쟁 기념식

배연자 회장 등 150명

| 인도네시아지부 |



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배연자)는 6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강당에서 전조영 한국대사관 공사, 배연자 회장 등 내빈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해 ‘제 68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배 회장은 “전쟁은 아프지만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다”라며 “앞으로 교민사회에서 호국보훈 활동에 힘써 국가안보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태권도대회 개최

5개국 총 342명 선수 참여

| 독일지부 |



독일지부(회장 김용길)는 6월 24일 독일 보트르프시 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알리기 세계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보트르프 백스 태권도협회와 독일지부가 공동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온 342명의 선수와 교민 등 12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용길 회장은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과 자총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